

# 남원시 긴급복지 도내 2위

### 현장 위주의 능동적 서비스로 1분기 288건 1억 3000여만원 지원

선진 복지행정을 자랑하고 있는 남원시가 현장 위주의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대다수의 복지 관련 지원은 본인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양한 형태의 복지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긴급 복지지원처럼 상황 발생 6개월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남원시는 제도 운용의 초점을 본인의 신청보다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발굴해서 지원하여 보호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남원시는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발굴해서 지원하고 보호해주는데 역점을 두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용해 올해 1분기 말로 288건, 1억3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도내 14개 시·군 중 2위의 실적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말로 288건, 1억3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도내 14개 시·군 중 2위의 실적을 달리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 소득원이 위기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는 생계지원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정엔 의료지원을,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기 사유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다.

이러한 긴급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일시적이나마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선지원 후 조사 원칙과 단기 지원 원칙 등 긴급 지원 제도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위기발생 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선지원을 하고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적정성 여부 결정시 소득·재산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지원 중단 및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일시적인 지원으로 위기가정에 생계 지원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의료지원 1회(1회 연장 가능) 등을 지원하다 보니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기준(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또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현장확인 시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다양한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및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운영,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또다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장애인연합회, 장애인의 날 기념 다채롭게

임실군과 임실군장애인연합회는 20일 군민회관에서 '제36주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홍식 군의회 의장, 사회기관단체장,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식과 오찬,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3천여 임실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과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 재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생활 속의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문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오늘 행사를 위해 지원봉사와 도움



임실군과 임실군장애인연합회는 20일 군민회관에서 '제36주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 GMP 생산시설 준공

### 노암산단 내 2층 규모... 공조시설 있는 제조장 등 갖춰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가 '친환경 화장품GMP 생산시설' 준공식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남원시는 20일 시설 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화장품 GMP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시설을 공개하는 시설투어를 실시했다.

준공식 행사는 남원시 시민농약단의 터울림 길놀이 공연이 행사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것으로 관내 기관·단체장과 관의 유관단체 인사,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할 이유와 계획, 추진상황 등을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남원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밝혔다.

화장품 GMP시설은 노암산단단지 내 14,416㎡의 부지에 연면적 3,006㎡ 2층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1층에는 차입시설을 포함한 공조시설이 갖춰진 제조장과 창고가 자리하며 2층에는 품질관리실, 기계실,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 화장품 GMP 규격 생산시설은 국비 포함 총 61억원의 사업비가 2014년부터 2년간 투입되어 완공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 첫 번째 화장품 GMP 규격의 공장이다.

또한 호남권 4번째 화장품 GMP 공장인 이 시설은 지역화장품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산업의 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화장품 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란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영문약자로 화장품의 특성상 제조과정에서의 인위적인 과오를 최소화하고 미생물, 이물질 및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준체계를 말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보건의 날' 기념행사

고창군에서 '제44회 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기념행사는 20일 고창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박우경 고창군수와 보건소 및 면사무소 보건업무 담당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건의료발전에 헌신한 주민과 보건의료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친절교육의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올해 보건의 날 주제인 '당뇨'에 맞춰 '당뇨를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 집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당뇨에 영향을 끼치는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의 중요성과 주민의 건강식생활 실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동실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박우경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행정을 펼쳐 가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금은 춘향시대' 미션 사진촬영

남원시 공무원

남원시 공무원들은 춘향제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금은 춘향시대' 미션을 미리 체험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였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남녀가 커플이 되어 광한투의 오작교를 업고 건넌고, 후호체험, 그네체험, 프로포즈 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지금은 춘향시대'는 미션사진촬영은 방문객 입장이 되어 미션을 체험할 때의 느낌과 감정을 미리 공유해보는 의미로 시행되었다.

특히, 사랑의 오작교 업고건너기 행사를 통해 평소 접하지 않는 커플 및 가족들에게 뜻 깊은 경험을 선사하고, 한복을 입고 오작교 업고 건넌 장면을 사진기로 찍어 방문객들에게 그 사진을 전달해줄 계획이다. 오작교 업고 건너기 체험은 시간별 15~20분씩만 운영되며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객 모두가 자유롭게 오작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외 사랑의화살, 장원급제 삼행시, 사랑의 한궁체험, 사랑의 연꽃 등 체험위주의 미션을 마련하여 알차게 운영할 계획이다.

제86회 춘향제 '지금은 춘향시대'의 특징은 짧은 20~30대 커플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18세기 삼춘향과 이몽룡이 그려졌듯 광한투 입장 후 미션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젊은 층의 수요를 끌어내고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삼계면서 올해 첫 모내기

임대기씨 3필지에 윤광벼 심어... 추석 올기쌀로 출하 예정

임실지역 올해 첫 모내기가 20일 삼계면 학정리 임대기씨 포장 3필지 1만㎡에서 실시됐다.

군은, 고품질 쌀 생산과 국내·외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생종(윤광벼)으로 첫 모내기를 실시하고 국내 쌀 재고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소득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시기 차별화, 노동력 분산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이른 추석으로 조생종 품종을 조기 심어 추석 전 햅쌀 출하로 높은 가격을 유도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물론 부추수확 등 복합농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노동력 경합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조기재배 기술 투입 및 단지조성을 통한 조생종벼 확대재배에 노력할 것"이라며, "동계작목(양파, 마늘) 2모작 작부체계 기술개발 보급 및 활성화, 조생종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발아기, 최하기 지원 등을 통해 논 농업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첫 모내기 장소는 일교차가 큰 임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품질이 우수하고 기상재해가 적은 조생종 품종을 조기 재배해 8월 하반기 수확해 추석 올기쌀(햅쌀)로 출하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착공

팔덕면 신평 천물내기 유원지 내 2층 규모 25억 투자 연내 완공

순창군이 순창 명품축산물 유통 및 판매망 구축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 첫 삽을 찼다.

군은 최근 팔덕면 신평 천물내기 유원지 내 축산진흥센터건립사업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천물내기 유원지 내 연면적 890㎡, 2층 규모로 25억이 투자된다.

군은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축산진흥센터는 순창 명품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망 구축과 강천산 군립공원, 민속마을, 승마장을 연계한 관광역량 유치를 위한 축산물 판매와 관광을 연결하는 6차산업과 신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축산진흥센터 1층에는 한우, 돼지, 흑염소 등 축종별 정육판매 코너 및 가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2층에는 축종별 단체사무실과 세미나실이 만들어져 지역 축산인들이 축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축산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종별 축산인들이 중심이 된 순창군축산발전연구회합동조합 구성도 마무리했다. 이미 지난해 말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앞으로 판매센터 운영과 축산물 유통 등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은 축산진흥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축산물의 품질관리는 물론 지역농특산물,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맛기행 거점센터 역할을 통해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 국회특정



## 제2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개회 첫날인 20일, 의회는 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 공사화추진 중단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1일~22일 실시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민선 6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원순환센터 및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등 관내 10곳의 현안사업장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현장의 생생한 주민여론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홍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줄 것"과 "영능철을 맞아 최선의 농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료의원들에게는 "현장방문 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표발의에 나선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은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이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공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자 교육

고창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명품위생업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9개소를 선정했으며 20일 선정된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군청 상황실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영업주들은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교부조건과 사업계획,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위생공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렴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업소당 지원받게 되는 군비 1000만원을 집행하면 된다.

이날 군 농업진흥과와 연계해 고창군의 대표 먹거리인 북분자를 이용한 신메뉴 개발 설명회가 함께 개최되며 희망하는 업소에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560-2886)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경찰, 사이버·과학수사 교육

순창경찰서는 최근 지역경찰과 112현장 대응부서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사이버 및 과학수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경찰청 전문 강사 2명이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쉽고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남계파출소 김종우 경사는 "평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고 사전 현장 초동처치에 유용하게 쓰일 수사기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교육소감을 전했다.

최규은 서장은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과 대처를 위해 직원들이 현장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구인규 기자